

창세기 읽기 열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9 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첫번째 창조 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조건을 내세워 서 뜻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그 조건들을 확인하면 성립된 거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게요.

근데 여기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계약 혹은 언약은 양쪽이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 언약 혹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 이러한 글을 읽는다면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생각만 담겨 있는 계약이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먼저 1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아 이건 어때서 어때서 이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또 2번을 제안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밀당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최선은 아니나 합리적인 거죠.

민주적으로 어떤 그 결론을 찾는 게 100프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뽑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견을 총합하지 않거든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결론을 냅니다. 그거는 완전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는 없죠. 간접 대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을 붙이면 그렇게 할 수 있긴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이죠.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도 있죠. 사람들이 많으면 직접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는 그 주제를 놓고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과정조차 다 생략해 버리고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지금 탈원전 먼저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가 새로운 정권에 의해서 뒤집어 졌어요.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난번 정권은 무 무충인가 뭔가 이젠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내면서 아 그렇죠. 어떤 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 나지 않습니다.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정권은 그런 과정 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 혹은 계약은 저를 주고받고 쌍방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적인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제안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한 게 뭔 지를 알고 계신 분이구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를 모르거든요. 선악과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좀 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식, 인식이요 뭘 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한계를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게 인식론적인 한계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보려고 했었던 생각이 신화적으로 표현된 게 선악과 이야기에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이브가 용감하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져서 본 거는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여기 피조물로서의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뭐 챗GPT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와서 아 지난번 알파고 바둑 그 인공지능 이후로 또 한번 센세이션을 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 할 겁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다 그거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도 있던데요. 인공지능 업계에서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 과학자들도 있겠죠. 저는 그 과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자로서 그리고 어느정도 철학적인 그 사유 방식을 조금 배운 사람으로서, 아무리 해도 그 임계점을 인간이 넘어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복잡하기도 하고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마르크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세권의 책을 읽고 저의 그런 생각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독일의 젊은 철학자로서 40세 전후반이예요. New Reality, 독일어로 *neue Realität* 노에 리알리티트, 새로운 현실주의, 새로운 현실성을 찾는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유란 무엇인가? 세상은 왜 없는가? 철학의 근본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철학의 주제가 뭘 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말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이지 인간 지능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챗GPT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달라지지 않았을걸요. 제가 읽은 것 3권의 책에서는 계속 그 관점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인간의 지능은 그냥 기계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물론 뇌의 작용이죠. 기계적인 작용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서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쳐서 뇌라는 특별한 그 형질을 인간이 취득하게 된 거죠.

근데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그 인공지능은 그냥 진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어떤 언어와 수학들을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겁니다. 인간

보다 출중하죠. 인간보다 출중하다고 해서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계산기가 수학 계산은 인간보다 더 잘하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 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수를 계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뭐 다르지 않다 더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정말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말할 지도 모르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논술 이런 것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고시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학부생들 보다 더 좋은 점수 받고 의사시험에서도 챗GPT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점점 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의학 정보를 의사 시험 볼 때 실제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답을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실제 인간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이제 그거를 기계가 넘어설 수 있냐 아니냐가 앞으로의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혹은 그 미래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커피 한잔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포도주라도 좋아요. 양주라고 해도 좋아요. 이것을 챗GPT를 비롯한 그 첨단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이 맛을 설명해 봐라 하면 멋지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인의 말도 인용할 수 있고요. 그 분석도 술에 대한 분석, 커피에 대한 분석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글하고 실제 사람이 그것을 직접 시음한 다음에 실제로 받은 느낌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거 둘 사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술이나 포도주를 커피를 마셔 보는 거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어서 말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날 겁니다. 챗GPT가 하도 글을 잘 쓰니까. 근데 그거는 그 커피를 마셔 보지 못한 정보의 나열입니다.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더라도요. 비전문가가 그 두 글을 읽어 보면 차이는 안 나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보면 다를 겁니다.

설교 작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에게 설교 어떤 본문을 주고 대학생들에게 알맞은 설교문을 A4 용지 다섯 장으로 좀 정리해 달라고 하면 잘하겠죠. 그러한 설교문하고,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가 자기네 교회 공동체의 대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설교문이 누가 뛰어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빼놓고 본다면 어떻게 진짜고 어떻게 가짜 인지는 구별되는 거죠.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걸 경험하거든요. 그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살아 있습니다. 그걸 인간의 영적인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어떤 아이스케키 그 느낌이 남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근데 그게 챗GPT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가상 공간에 흩어져 있는 언어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인간의 인신론적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루 이틀 논란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세상이 끝날까지 이게 완전히 정리되진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한 아들들이 나오죠. 뒤로 18절부터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예요.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 언약이라고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하다고 믿는 겁니다. 선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 의존해서 산다는 게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타당한 말인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 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밀어붙여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 뭘 믿는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할 만합니다.

10절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또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세운다고 하네요. 성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의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소나기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간혹 뜨잖아요. 대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무지개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지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겠죠. 자주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지개를, 고대의 저 창세기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의 약속으로 와닿은 겁니다.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활과 같다면서요. 무지개는 rainbow, 활은 그냥 bow. 무지개를 구름속에 두었다 무지개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나와 하나님과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새언약이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

은 이 앞에서 첫 번째 창조에서 나왔는데 다시 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은 또 새로운 언약이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끔찍한 재난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지음을 후회할 정도로 죄현상에서 자기 창조를 부정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졌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대재난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 내 언약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 계속 그게 반복되요. 이제 8절 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말이 수 없이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궁극적인 언약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황하게 들릴 거예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생명을 얻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요?

이 언약은 아직 우리가 현실로 확인할 순 없으나 이미 되어졌다 하는 이미 되어졌다는 실행됐다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생명이, 그것은 죽지 않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이 사람 죽었어 뭐 다시 살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 은폐 방식으로 현실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 더 설명하고 싶긴한데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고요. 그거를 보충 설명하다가는 사족이 될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어요.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이에요. 이거는 몇일 몇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된 거예요. 그 분을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는 게 그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리얼리티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만약에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